숲,
보기- 읽기- 담기

전영우_국민대 교수

숲을 적극적으로 파는(또는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고 파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대상은 물질적인 숲이 아니다. 오히려 숲에서 창출되는 체험과 간접경험과 지식을 사고 파는 세태를 말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연휴양림의 인터넷 예약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다양한 형태의 산림체험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인쇄와 방송매체에서도 숲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활자나 영상으로 상품화(기사화·프로그램화)되고 있다.

숲을 대하는 시민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숲 보기와 숲 읽기와 숲 담기가 그것이다. 숲 보기는 숲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심한 상태를 말한다. 시민의 대다수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숲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나 있다. 눈길 가는 곳에 산이 있고, 산이 있는 곳에는 으레 숲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숲을 보지만 너무나 흔한 주변의 자연이기에 우리들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칠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은 숲이 지닌 복합자원의 속성 덕분에, 숲에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각 덕분에 숲을 대하던 무심한 시민의 태도(숲 보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생태와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 나무나 숲에 대한 몇몇 저술가들의 좋은 책 출판, 시민들의 야외휴양에 대한 욕구확대 등도 이런 태도변화에 일조를 했음에 틀림없다.

이즈음 우리들 주변에서 숲을 찾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바로 그런 변화의 징후라 할 수 있다. 숲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숲을 찾고 있다. 바로 숲을 적극적으로 읽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숲 읽기는 숲 보기보다는 숲을 대하는 태도가 보다 진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숲을 읽는 사람들은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의 종류를 구별하고, 숲을 만든 의도를 헤아려보고, 생태계에 있어서 숲의 위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숲을 찾는다. 그래서 주변의 아름다운 숲, 문화적 의미를 간직한 숲, 조림학적 가치를 지닌 숲, 생태학적 의미를 간직한 숲을 찾는 한편, 잘못된 임도건설이나 숲 가꾸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기도 한다. 바로 숲 읽기를 통해서 숲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숲 읽기는 보통 나무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 종류의 나무도감류들의 출판이 오늘날 활발한 이유도 숲 읽기를 나서는 시민의 문화 코드를 정확히 예측한 출판기획자들의 선견지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숲 읽기에 대한 다음 단계는 숲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판사들이 도감류 출판의 뒤를 이어 다양한 종류의 숲 안내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숲은 대부분 온대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대림이나 한대림은 온대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분포하며, 소수의 수종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 온대림 중에서도 가장 흔한 숲은 소나무 숲이다. 따라서 우리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소나무 숲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나무 숲에 대한 옳은 이해는 숲의 종류를 파악하고, 나아가 숲을 이루는 나무를 구별하는 능력보다 더 높은 숲 읽기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숲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천이와 생태계에 대한 식견을 갖고, 문화의 창으로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여타 수종에 비해 유독 소나무에 대한 책이 여러 권 출판된 이

이 글을 쓴 전영우는 1951년 생으로 고려대학교 임학과와 대학원에서 임학을 전공했다. 현재 국민대학교 삼림자원학과 교수이다.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운영위원,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서로《산림문화론》,《나무와 숲이 있었네》,《숲과 녹색사회》 등이 있다.

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숲 읽기에 대한 능력이 이 정도로 향상되면 굽은 나무로만 이루어져 하찮게만 보아왔던 주변의 소나무 숲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주변의 숲들이 이 땅의 농경문화 발전과 더불어 장구한 세월 동안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었으며, 아무리 볼품 없는 숲이라도 나름의 의미를 지닌 자연유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숲에 대한 이해의 폭이 이 정도로 넓어지면 숲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바뀐다. 무심했던 눈길이 관심과 애정이 담긴 따뜻한 눈길로 변한다. 아름다운 숲, 유명한 숲, 명승지의 숲 못지않게 우리 주변의 숲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무심히 봐왔던 숲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바뀐다. 우리 주변의 숲이 나름의 독특한 의미를 간직한 숲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숲에 대한 감동이 생긴다. 숲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깊어지면 절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숲의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철따라 변하는 숲의 소리가, 냄새가, 촉감이, 맛이, 색깔이 오감을 통해서 가슴에 쌓인다. 바로 숲을 가슴에 담기 시작하는 순간이며, 숲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다.

숲을 가슴에 담는 일은 숲을 이해하는 일과 다르다. 숲 이해 또는 숲 읽기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숲 담기는 개인의 감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 사물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유사하지만 감성적 체험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감성적 체험은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오직 각자가 지닌 감성의 그릇에 따라 각기 다른 폭과 깊이의 정서적 체험을 경험할 뿐이다. 그래서 감성적 체험은 한정적이고 구속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개방적이고 자유스럽다.

숲 보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민을 숲 담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간과 경제적 대가를 투자해야만이 숲 보기의 수준을 숲 읽기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과연 숲 담기는 가능할까.

숲 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일 수도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우리의 일상을 수시로 되돌아보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숲 담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숲을 가슴에 담는 일은 인간의 영혼과 자연의 영성이 함께 교감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산업주의로 파생된 환경문제, 빠름의 가치관에 전도되어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는 오늘의 세태를 생각하면, 숲은 더 이상 단순한 자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숲은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탄소를 먹고 부피를 키워 인간생활에 필요한 임산자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숲은 우리 생명의 근원인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공급한다.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경제적·환경적 기능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자양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숲이다. 숲을 복합자원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경제와 환경과 문화자원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간직한 숲을 시민 개개인의 가슴에 옳게 담게 만드는 일은 숲 전문가는 물론이고, 출판기획자의 몫이다.